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율법을 완성하는 성령의 법 성경: 마태복음 5장 38-48절

Tag: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5:38-48)

오늘은 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행동강령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살인은 죄니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을 어긴 자는 죽이라는 말씀도 있다.

16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레24:16) - (오늘날 고작 출교, 이단정죄)

10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20:10) - 현행 형사법에서는 입건하지 않음. 민법만.

15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21:15) - 현행 형사법에서는 죽이진 않음.

물론 이 율법은 당시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검사나 경찰)도 없는 모세시대에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것이다. (모세시대에는 모세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왕정 시대에는 왕이 오늘날의 삼권분립 또한 미완성)

아무튼 구약성경에는 많은 율법들이 있고, 그 율법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율법정신과, 목적과, 정서가 있다.

구약 성경의 법 정신이 결국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시어 경배의 대상이시며, 숭배의 대상이시다.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은 죄가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지만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시며 그 도구로 생사화복을 사용하신다.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죄에 빠져 스스로를 악하게 만들었지만,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다.

-거룩한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성을 유지할 때 사회는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안녕과 질서를 통해서 인권이 유지된다.

-애초에 구약성경의 율법 정신에는 유일신 사상과, 성속의 개념과 (이 개념은 개신교에도 강하다, 오늘 본문에도 강함.),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목적의식으로서의 구원에 관한 가치관이 담겨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NAP(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이 중에서 인권에 관한 부분만 확대해서 강조한다. 마치 인권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법은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규정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반발함)

-왜냐면 nap에는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성속의 개념도 없고, 죄에 대한 개념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죄로 여기는 행위에 대해서 죄로 가르치면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예;동성애는 처벌하지 않으면서(오히려 AIDS에 걸렸으면 치료해준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혐오 발언으로 처벌한다.

<국민일보 2018.8.15.>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발상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철학적 기반이라면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형벌 등으로 잘못된 문화를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다.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어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집단을 보호하고 어떤 행위를 통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진다.

2007년부터 8차례 제정시도가 있었던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지향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있다.(이 부분을 기독교에서 민감하게 여김.) 이들 3개 영역은 성별 인종 피부

색 등 17개 영역과는 달리 윤리·도덕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영역이다. 사회질서를 해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부도덕한 성행위와 신천지, 과격 이슬람은 비판의 대상에서 보호 대상으로 '승격'된다. 정당한 구분조차 차별행위로 전락한다. 타인의 언어표현이나 눈짓도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면 차별행위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3417&code=23111111>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5:17)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뜻한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씀은 요즘처럼 율법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성령강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없는 율법까지 세밀하게 더 많이 만들어서 율법의 미비한 부분을 완성해서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다.

-소위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지침(guidelines;모범)을 율법으로 해석하거나 새로운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이 이전의 율법보다 더

우수한 율법의 완성이나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통한 구원을(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설명하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어 준 것이지 하나하나가 어떤 새로운 율법 조항의 신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예를 드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성령을 받으면 이처럼 율법이 완전해진다는 의미이다.

-제사법과 성속을 판단하는 정결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 되었고, 위생법은 체제가 바뀌면서 오늘날 국가들의 통치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율법들은 종교적 영역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만 귀하게 여기는 법들이다.

-남는 것은 결국 형법과 사회질서를 위한 안녕과 인권만 남는다.

-그 중에서 '부도덕한 성행위와 신천지, 과격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오직 기독교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위 인권법을 만들면서 친 좌파 기독교 인사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지침의 오용에 있다.

-예수님이 행동 지침에 의하면 이들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것이 옳은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의 세가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쪽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독교는 이들 세력이 끼치는 해악을 감당하면서 선교를 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희생적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그들이 결국 회개할 것이라는 것인가?

-이들은 기독교 내에서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지침을 내세워 위의 세가지 세력들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행동지침을 마치 율법처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즉, 성령의 도움이 없어도 원수를 사랑하자는 셈이다. 성령의 도움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율법화 한다면 성령의 도움과는 무관하게 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율법은 율법이고, 성령의 법은 성령의 법이다. 이 두 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은 율법이고, 44절은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법.) 44절 까지도 율법으로 만들려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오직 성령 받은 기독교인만, 희생적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곧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혐오금지 법안은 철저한 율법주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가가 그렇게 행하는 것은 독재일 뿐이다.

<찬양예배>

제목 : 각 부서 리더들의 임무 성경: 빌레몬서

Tag: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2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4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 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리니
-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
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권된 내
게라
- 17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
고
- 18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 21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
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 22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속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 24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문
1:1-25)

1.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 5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 너에게 성도들의 신뢰가 있다. 성도들이 너를 믿어준다.
 - 오늘날 신뢰란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이고, 사회 생활에 본이 된다는 뜻이다.
- 세상 윤리 기준으로도 본이 되고, 성령의 법으로도 기준이 된다는 뜻.

- 그러므로 교회에서 인정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교회에서 인정 받는다는 것은 리더로서 중요함.

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 그 결과 전도와 양육(전도의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됨.

2. 자발적 선행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역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 리더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인 선행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 진땀 흘려 전도왕도 스스로 교회 첫발을 내딛는 순간 자발적으로 전도하기로 결심함.
-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것이다.
- 이것이 진짜 리더이다.

8 이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 명령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더 좋은 성령의 감동을 포기해야 한다.
- 명령이 나쁜 것도, 순종이 나쁜 것도 아니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의미.
- 어떨 때는 명령이 좋다. 항상은 아니고. 목사가 강경하게 말하면 명령으로 알아 들으면 지혜가 된다.
- 사병은 큰소리로 하고, 장군들은 소곤소곤 하게 말하면 알아듣는다.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의 교묘한 설득력. 순종을 도우려는 의도임. 혹시 모를 오해와 일을 그르침을 방지하기 위함.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지만. *갇힌 중에도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아들로 삼았다. *저가 내게 참 필요하구나. *그러나 네게도 필요하구나. *그는 너의 심복이 아니냐

*그가 네 대신 나를 섬기고 있구나.

*그러나 너의 승낙이 없이 하는 것은 내키지 않는구나.

*아마도 그가 잠시 떠난 이유가 그를 너에게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 아니겠는가? (그럴듯한 핑계거리, 도망친 것이 유익이 되었다구?)

*그의 빛은 내가 갓졌으나, 너도 내게 빛이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겠다.(이미 말 하면서)

3. 주 안에서 그를 존중하라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히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를 마치 나 바울을 대하듯 하라 (모든 성도를 존귀히 여기라)

-나도 그를 매우 특별히 대우하고 있다.

